조지아관광청 with 문의 1800-1454
코카서스 3국 여름여행
7/6, 7/13, 8/10, 8/24 출발 GTG Korea 서울사무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알려주고 싶었죠”

- 황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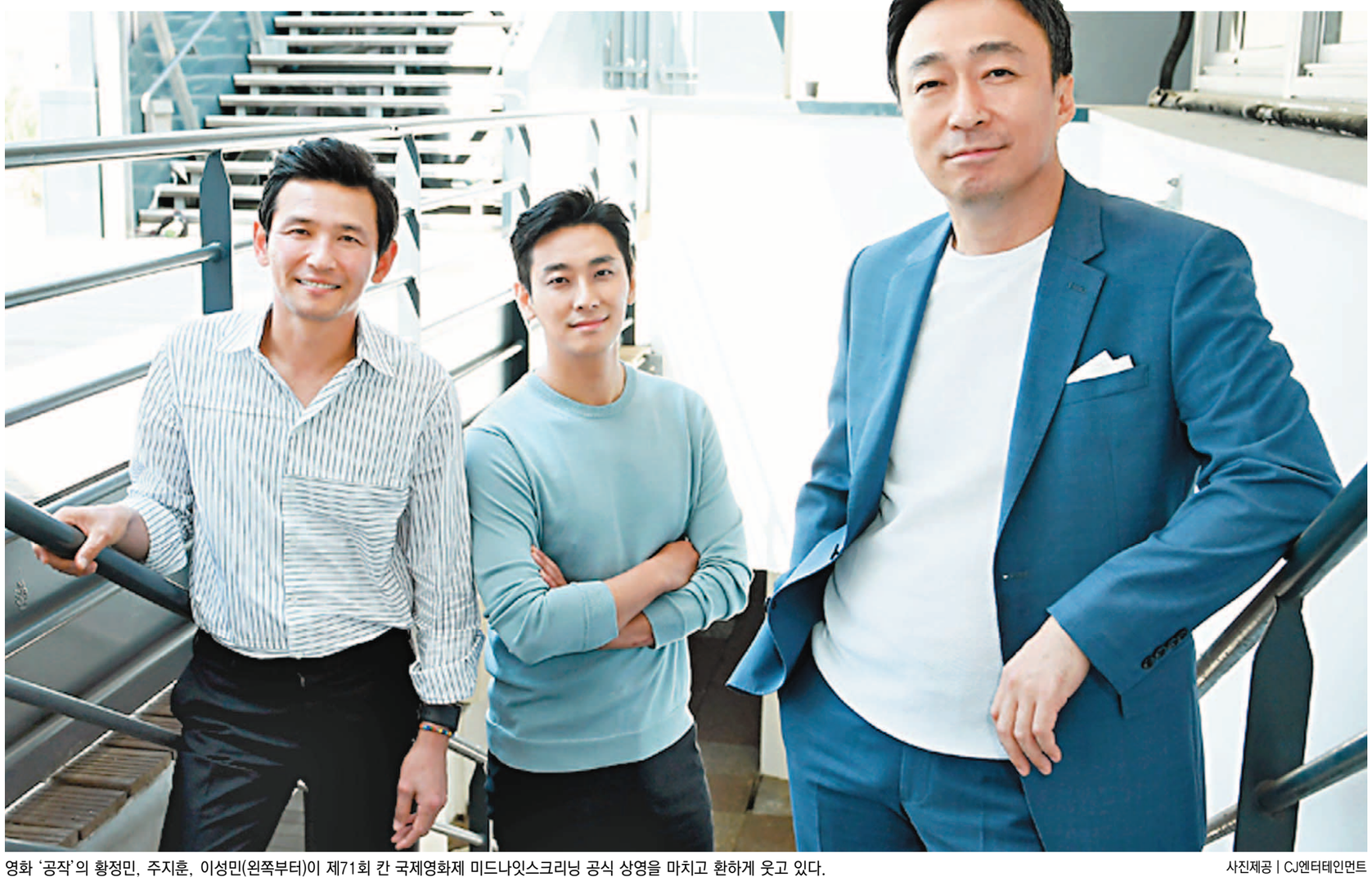


이해리의 칸&피플

영화 ‘공작’으로 레드카펫 밟은

황정민·이성민·주지훈

황정민과 이성민, 주지훈은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배우를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지만, 이들은 뜻밖에도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세 배우를 칸으로 이끈 영화는 1990년대 남북한 첩보전을 그린 ‘공작’이다.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12일(한국시간) ‘공작’을 공개한 이들을 영화제 메인 행사장인 팔레 드 페스티벌에서 만났다. 영화를 공개하는 자리는 어디든 비슷한 마음이라는 이들은 칸의 감흥이 그리 크지는 않은 듯 했다. 황정민은 “(부산)해운대와 비슷하다”며 “빨리 서울에서 내장탕을 먹고 싶다”며 웃음 지었다.



영화 ‘공작’의 황정민, 주지훈, 이성민(왼쪽부터)이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공식 상영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황정민

“흑금성의 눈 이미지 표현 의무감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마친 기분”

▶이성민

“달라진 남북 분위기, 꿈 현실로
NG 퍼레이드…촬영장 치열했죠”

▶주지훈

“진한 휴머니즘 담긴 사람 이야기
한 땀 한 땀 공들여 완성한 작품”



12일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공식 상영 레드카펫에 선 주지훈, 이성민, 윤종빈 감독, 황정민,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왼쪽부터).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황정민 “사람 사이 이데올로기가 무슨 소용”

‘공작’은 1990년대 ‘흑금성’으로 실제 활동한 스파이 이야기다. 북한 핵개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북에 잠입한 그는 1997년 대선 직전 남북한 사이의 모종의 계획을 접하고 신념에 변화를 맞는 인물이다. 황정민이 흑금성이란 인물에 끌린 데는 그의 확고한 ‘바람’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데올로기는 필요 없다고 늘 생각해왔다. 영화에 드러나듯이 우리가 그간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받으며 속고 살았는지, 그걸 꼭 관객에 알려주고 싶었다.”

황정민은 자신이 맡은 실존인물을 한 번 만났다. 황정민은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그 분(흑금성)의 눈, 그 눈이 가진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무감에서 출발했다”고 돌이켰다.

기존 첩보물과 달리 긴박한 추격전이나 액션 장면 없이 담담하게 전개되는 영화로 인해 황정민의 어깨는 더 무거웠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심리전을 밀도 있게 표현해야 했기 때문이다. 황정민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두고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한 편 마친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자꾸 스스로를 질책하게 됐다. 배우로서 좋은 작품을 보여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과정을 보냈다. 작년 ‘군함도’와 ‘공작’까지 마치고 난 뒤 스스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베테랑 배우에게 찾아온 일종의 슬럼프였다. 해결은 역시 “연기”다. 황정민은 ‘공작’ 촬영 직후 고전 ‘리차드3세’로 연극 무대에 다시 올랐다. “뭔가를 채우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그는 “극한의 경험을 거치고 지금은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성민 “로마시대 전쟁 마친 전사의 기분”

이성민은 칸의 상징인 뤼미에르 대극장 레드카펫을 밟는 기분이 “남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라고도 했다.

“레드카펫을 걷고 극장 계단에 올라서서, 뒤돌아보니 함께 작업한 스태프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높지 않은, 그 짧은 계단이, 내겐 마치 로마시대에 전쟁을 마치고 온 전사의 기분을 느끼게 해줬다.”

‘공작’은 이성민에게 남다른 작품임에 분명하다. 평소 NG와는 거리가 먼 그이지만 이번에는 예외였다. 스스로 “NG퍼레이드였다. 촬영장이 끔찍할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치열한 현장이었다는 의미다.

영화에서 그는 남한 첩보원과 접촉하는 북한 고위간부로, 확고한 신념으로 남과 대치한다. 영화가 진한 인간미를 더할 수 있던 데는 이성민의 공이 상당하다. 그는 “‘공작’은 첩보물이라기보다는 딜레마에 빠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영화가 남북한 갈등과 북한 핵을 소재로 삼은 만큼 이성민 역시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작년 1월 촬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남북은 극단적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분위기”라며 “우리가 ‘공작’을 시작하면서 꾸었던 꿈이 지금은 현실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첫 칸 방문에 이성민은 아내와 동행했다. 3박4일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아내와 둘 만의 파리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황정민 역시 칸 일정을 마치고 가족과 파리로 떠났다.

●주지훈 “체제보다 사람, 나에겐 큰 화두”

칸에서 만난 ‘공작’ 배우들은 줄곧 “사람”그리고 “휴머니즘”을 자주 꺼냈다. 주지훈도 그랬다. 철저한 이념에 사로잡힌 북한군 역의 그는 “한 관객의 입장으로 본다면 ‘공작’에서는 진한 휴머니즘이 느껴진다”며 “체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에게 큰 화두로 다가왔다”고 했다.

30대 중반인 주지훈은 이를 계기로 남북한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를 갈라놓은 건 체제이지,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통일이 된다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지만 “한 땀 한 땀 공을 들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완성한 영화”를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했으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칸이라는 공간이 주는 묵직한 전율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드카펫 공포증’을 털어낸 이야기도 소개했다.

주지훈은 “레드카펫은 나에게 무서운 공간이었지만, 선입견을 깨준 사람이 (정)우성이 형”이라며 “영화 ‘아수라’를 찍고 함께 레드카펫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준 형의 멋진 모습 덕에 내 인식도 바뀌었다”고 했다.

실제로 ‘공작’ 레드카펫에서 누구보다 여유로운 팬 서비스를 보인 그는 “꼭 칸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칸(프랑스) | gofl102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공작’은 ‘흑금성 영화’라는 사실 감추기 위해 지은 제목

3가지 키워드로 본 ‘공작’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공작’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2일(한국시간)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첫 상영된 ‘공작’과 칸 국제영화제의 만남을 3가지 키워드로 풀었다.

●판문점선언

‘공작’의 영화제 초청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칸이 여러 편의 한국영화 가운데 콕 짚어 ‘공작’을 택한 배경이다.

실제 해외 관객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영화가 상영된 2시간20분 내내 객석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북핵문제는 물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른바 ‘북풍 사건’과 같은 분단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는 해외 관객이 과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영화 세일즈를 담당하는 한국영화 관계자는 13일 “남북한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놀랍다, 새롭다는 반응이 많다”고 밝혔다.

●타이밍

‘공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4년 기획을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대선 직전, 남한의 여당 정치인과 안기부 그리고 북한 핵심세력 간의 모종의 거래를 담은 실화가 바탕이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맡은 윤종빈 감독은 “처음부터 흑금성 영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최대한 숨겨야 했다”며 “‘공작’이란 제목 역시 흑금성을 감추기 위해 지은 이름”이라고 털어놨다. 당시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정권의 ‘탄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남북한 상황은 급변했다. 종전을 앞둔 현 상황이 ‘공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공작

●흑금성

‘공작’은 흑금성으로 활동한 전직 안기부 소속 첩보원 박채서 씨의 이야기다. “중앙정보부 소재 영화를 준비하다, 북한으로 침투한 스파이의 존재에 매료돼 시작했다”고 밝힌 윤종빈 감독은 스파이가 주인공인 첩보물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덤덤한 시선으로 극을 완성했다.

화려한 스파이액션에 익숙한 관객들에겐 낯선 시도가 오히려 칸에선 주목받았다. 프랑스 배급사 메트로폴리탄 관계자는 “현 시대 상황과 놀랍도록 밀접한 스파이영화”라 했고, 대만 영화배급사 캐치플레이 관계자는 “지적인 매력이 있다”고 평했다.

칸(프랑스) | 이해리 기자